

개방, 제도, 경제성장 / 송원근 (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)

□ 대외개방(openness)이 생산성, 경제성장 등 economic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

- 대외개방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명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 (Sachs and Warner(1995), Frankel and Romer(1999))
 - World Bank, IMF,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개방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.
-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FTA 등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.
 - 한·미 FTA 등의 추진 과정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음모론이나 이념논쟁이 대부분이었고 생산적인 논쟁 부재했음.
 - 개방 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(trade)이 경제성장(economic growth) 및 소득(income level), 혹은 생산성(productivity)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음.

□ 무역(trade)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

- Frankel & Romer(1999):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제무역(international trade)의 증대가 소득을 향상시킴을 보임.
 - 교역량은 외생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무역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무역의 효과로 보기 어려움
 - Frankel & Romer(1999)는 지리적 특성(geographical characteristics)을 도구변수(IV)로 하여 무역의 소득에 대한 효과를 추정. OLS 추정결과와 통계적 차이가 없음을 발견
 - 무역증대를 가져오는 개방 확대정책이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

□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제도(institutions)의 역할에 대한 논의

- 제도의 수준(institutional quality)이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론 및 실증 연구: North(1990), Hall and Jones(1999), Acemoglu, Johnson and Robinson(2001)
- 대외개방이 생산성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에 대한 반증으로 제도(institutions)의 경제성장에서의 결정적 역할이 거론되고 있음. (Rodriguez and Rodrik (2001), Rodrik, Subramanian and Trebbi (2004))
- Rodriguez and Rodrik (2001): 개방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대한 review를 통해 무역 제한(trade restrictions)과 경제성장 간의 negative relationship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 도출
 - Dollar(1992), Sachs & Warner(1995), Edwards(1998)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이 개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의 문제점 등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
 - 개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다른 제도변수들과 관련되어 있고, 따라서 제도변수들이 control될 경우, 무역정책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
- Rodrik, Subramanian, and Trebbi (2004):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제도, 지리적 위치, 무역의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제도의 수준(quality of institutions)이 결정적 요인
 - 제도수준 변수가 control된 경우, 무역은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실증분석 결과 도출
 - 지리적 위치(geography)도 제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 도출

□ 개방 수준(openness) 및 제도가 모두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

- Alcalá and Ciccone (2004): 국제무역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
 - trade를 나타내는 변수로 실질개방수준(real openness)¹⁾을 사용
 - 지리적 위치(geography)를 control한 회귀분석에서 개방수준과 제도수준 모두 생산성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 도출
- Badinger(2007): 무역과 제도수준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무역정책의 하나인 FTA의 역할을 고려함.
 - 지리적 위치와 무역정책의 차이에 기인한 개방수준과 제도수준 모두 경제적,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의 결정요인이라는 실증분석 결과 도출
 - 지리적 특성에 따른 FTA 참여성향에 근거한 도구변수의 구축
 - 추정결과에 따르면 FTA는 체결 국가간 교역량을 2배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
 - 제도의 선진화와 대외교역의 확대가 생산성 상승 및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임을 시사

□ FTA 추진정책 및 제도개선에 주는 시사점

- FTA 추진의 목표를 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통합에 두느냐 아니면 FTA의 제도개선 효과에 두느냐에 따라 추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.
 - 중국·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FTA 우선 추진 혹은 제도 수준이 높은 경제권과의 FTA 우선 추진
- 제도개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 but 한국·일본 등의 political institution은 과두체제(oligarchy)이므로 성장의 지속에 한계가 있다

1) 실질개방수준(real openness)=(수입+수출)/PPP GDP in US\$. 이전의 실증연구 (Rodrik et.al 포함)에서는 명목개방수준을 trade 변수로 사용함.

는 지적 (Acemoglu(2007))

- 과두체제에서 기존 생산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산권 보호는 성장을 촉진하나 기존 생산자의 정치적 힘을 강화시켜 미래에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이는 성장둔화의 원인이 됨.
- 과두제(oligarchy)와 민주주의(democracy): 과두제가 초기에는 성장 유인하나 시간이 갈수록 진입장벽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
- 주요 생산자에 대해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및 국내시장 보호 등의 우호적인 정부정책을 보여준 한국, 일본을 대표적인 과두체제의 하나로 간주. 한국·일본의 고속성장 이후 최근의 성장둔화를 과두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봄.

– Acemoglu의 명제에 따른 연구 및 정책 과제

- 고속성장 시기 한국의 institution이 과두제라고 할 수 있는 incentive structure를 제공하였는가?
- 과두제가 한국에서 잠재적인 생산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성장이 둔화된 원인인가?
-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과 높은 개방수준이 경쟁의 심화를 통해 과두제의 특징을 상쇄시킨 측면은 없는가?
-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institution 개선의 중점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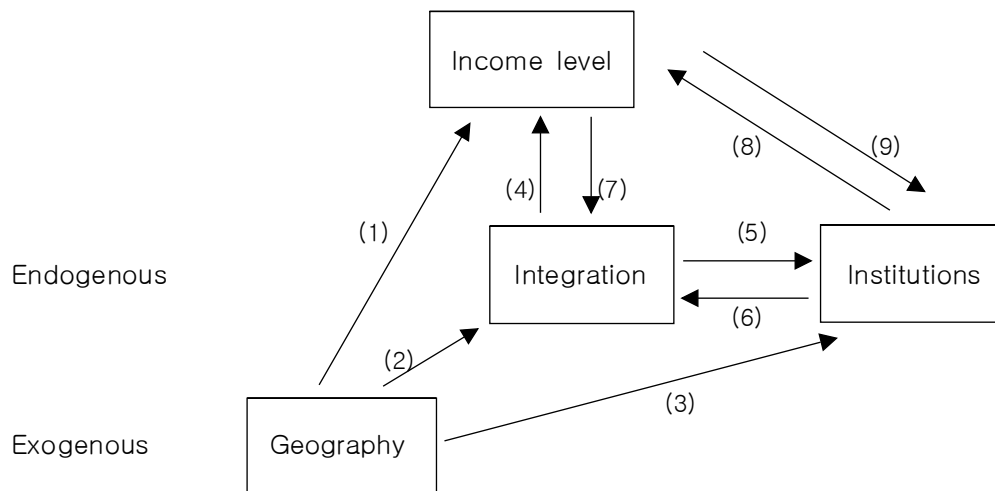


Figure 1. The "deep" determinants of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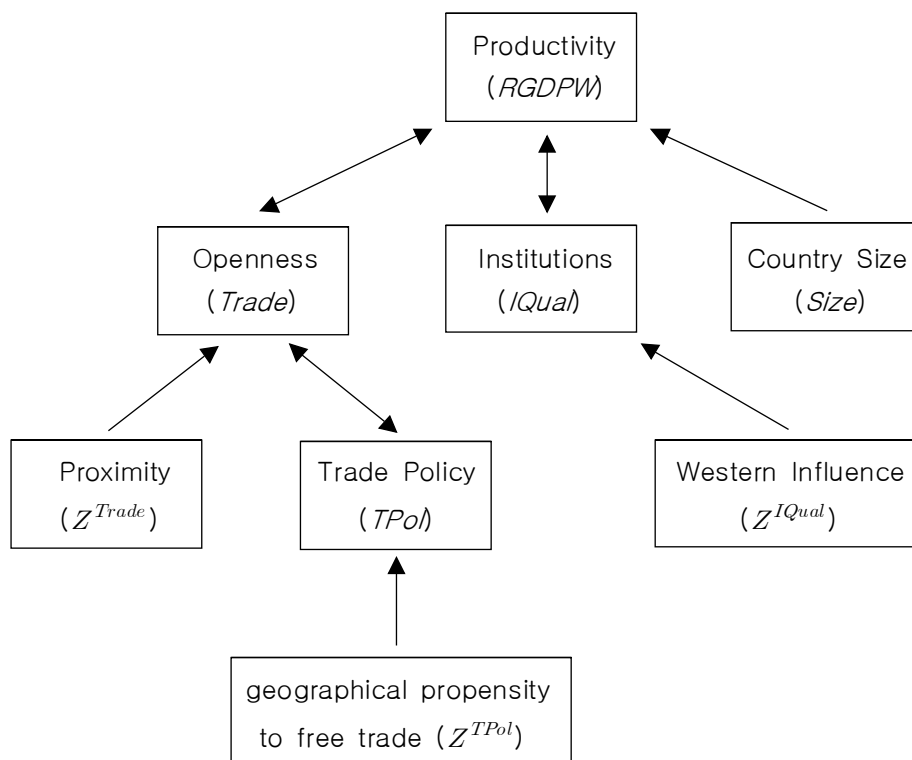


Figure 2. Relationships between key variables in empirical model